

광주·전남 학교폭력 더 심해졌다

최근 5년새 가해자 광주 4배·전남은 2배 늘어

광주, 폭력 건수 2063건 전국 5번째 많아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자 지난 2006년 이후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남지역에서는 2배 가량 늘었다.

이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에서 드러났다.

광주 초중고의 경우 지난 2006년 201명이던 가해자가 지난해 956명으로 4배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432명에서 77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 가해학생은

956명으로 이를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296명)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특별교육(270명), 사회봉사(143명), 서면사과(106명) 순이었다. 퇴학처분은 단 한 명도 없어 학교 측이 폭력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692명) 대비 가해 학생수(956명)로 미루어 집단 폭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지역 가해 학생수는 775명이었으며 교내봉사(324명), 사회봉사(120명), 서면사과(104명) 순이었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4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건수(초중고 학생)가 가장 많았던 시·도는 경기

(8438건), 서울(7125건), 부산(3186건), 대구(2199건), 광주(2063건) 등 의 순으로 파악됐다.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 3980건, 2007년 8444건, 2008년 8813건에서 2009년 560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7823건을 기록, 큰 폭으로 늘어났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교내 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폭력 예방 교육과 창의·인성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레크리에이션 즐기는 어르신들

16일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열린 ‘이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공연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3개월내 돌려 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기를 당한 피해자는 별도 소송 절차가 없어도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안에는 금감원의 체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

의인의 이의제기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긴급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

해자가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일 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내역,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여수경찰은 16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데 양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8·여수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40분께 여수시내 한 편의점에서 전날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밤 11시께 이 편의점 주인에게 ‘편의점에서 주최한 이벤트 행사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료했다’며 트집을 잡아 폭언 등을 했으며,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도 무전취침 등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오늘 경찰 출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7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교과부로부터 고발됐다.

김 교육감은 경찰에서 고발 조치에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무료 변론을 맡은 백승현·안호영·전봉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khkim@

신고 암시 보복 협박

여수경찰, 30대 구속

여수경찰은 16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데 양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8·여수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40분께 여수시내 한 편의점에서 전날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밤 11

시께 이 편의점 주인에게 ‘편의점에서 주최한 이벤트 행사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료했다’며 트집을 잡아 폭언 등을 했으며,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도 무전취침 등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1시40분께 여수시내 한 편의점에서 전날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부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최다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공무원 합격의 대세! 입도적 우! www.hanbitgosi.co.kr

개강 9월 1일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의

나우침 8381

대학생
10명중 6명
비자
챙겼고...
6명

경제난으로
장기미매
하는사람
더늘었다
6명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그려고도 10살
산다면 조물주
회복이지
6명

직 당시 최씨의 청탁을 받고 전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18억 원 상당의 조형물 제작 전시 공사에 대한 입찰 정보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 알려주고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도교육청 재직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박씨에게 “이번 입찰에 자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참여하는데, 경쟁업체 입찰금액을 알려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입찰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사 편의 봄주고…

7천만원 받은 건설사 간부 구속

돈 건네 협력사 간부 불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사대는 16일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모 건설사 부장 K(49·서울시)씨를 배임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2개 협력업체 간부 B(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K씨의 차명 계좌에 디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 K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또 일부 협력업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받고 난 뒤 불법으로 재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을 주목, 서 전 의원에게 전달된 3000만 원이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수시 여수산단 내 모 석유화학 공장 증설 공사(광주일보 2010년 10월 27일 10면)와 관련해 외주 협력업체 현장 소장인 B(36)씨에게 “공사 편의를 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다른 1개 업체로부터도 4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의 차명 계좌에 디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 K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또 일부 협력업체에서 공

사를 하도록 받고 난 뒤 불법으로 재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 소속사, 유재석에

출연료 4억9천만원 지급”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쿠스톨이엔에프에 “에프로프로그램 출연료 6억4000만 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000만 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쿠스톨이엔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4000만 원을 지금 하라”며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에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후 방송 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스마트폰 문자 보냈다 꼬리 밝혀

O·자신이 일하던 숙소 주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

아난 20대 젊도끼이 훔친 물건을 판

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동료에

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검거.

O·16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박모(24)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한 잠수부 숙소에서 박모(55)씨의 오토바이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훔친 뒤 도망갔다는 것.

O·박씨는 범행 이를 후 오토바이를 판 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함께 일했던 잠수부 동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박씨를 검거.

/서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